

AI시대와 사기의 글로벌화



이승환의
어드바이스

인공지능(AI) 시대를 살다 보니 어제의 상상이 오늘의 현실이 되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10년 전에는 “설마 영상통화 얼굴까지 속일 줄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건이 빈번하다. AI로 실제 가족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하는 단계다. 지난 2023년 해외에서 보도된 한 사례를 보면 사기범이 어린 딸의 목소리를 딥페이크로 생성해 “엄마, 납치당했어요. 살려줘”라고 전화를 걸어 부모에게서 거금을 뜯어냈다. 불과 30초 정도 SNS에 올린 영상에서 음성 데이터를 뽑아 가짜 목소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또 다른 신종 수법으로는 딥페이크 영상 통화 사기도 있다. 얼굴 합성 기술을 이용해 영상 통화에서 마치 본인인 것 처럼 얼굴을 보여 주며 돈을 요구하는 사기다. AI사기는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머지 않아 대량으로 범행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의 경각심과 교육이다. 새로운 사기 수법이 나타날 때마다 언론과 공공기관을 통해 ‘속지 않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영상통화라고 해서 다

만지 말 것’, ‘전화로 돈 요구하면 바로 끊고 확인할 것’, ‘유명인이 돈 버는 비법을 알려 준다는 광고는 무조건 의심할 것’ 등 구체적인 예방 수칙을 널리 전파해야 한다. 결국 사기란 ‘신뢰를 가장한 거짓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이메일이든 문자든 영상이든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교차 검증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너무 좋은 제안일수록 의심하라”는 오래된 격언은 AI시대에도 유효하다.

최근 사기 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네트워크화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된 만큼 사기범들도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활동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발신되는 보이스피싱 전화라고 해도 실제로는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서 걸려 오는 경우가 대다수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신고되는 전화 금융사기의 94%는 중국발 전화로 조사됐다. 나머지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 주요 발신지로 지목된다.

글로벌 사기 조직은 갈수록 진화하고 거대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범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점이다. 사기범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국가 간 경계를 악용한다. 국내 공범들은 불집어도 해외에 도피한 총책은 끝까지 추적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경찰청 통

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수사에서 조직의 뒷선(총책 등)까지 검거되는 비율은 2.2%에 불과하다. 나머지 97% 넘는 경우는 돈을 인출한 말단 가담자나 현장에서 붙잡힌 조직원만 처벌받고 정작 주범은 해외에 숨어 버린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도 상대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으면 그만이다. 실제로 중국, 동남아 일부 국가는 자국민 피해가 아니면 우선순위가 낮다는 이유로 우리 측 공조 요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글로벌 사기라는 거미줄에 걸려들면 국가의 힘으로도 구해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자금세탁과 은닉을 쉽게 한다. 피해자로부터 탈취한 돈은 곧장 해외로 송금되거나 암호화폐로 바뀌어 흔적을 감춘다. 한 번 국외로 빠져나간 돈을 다시 추적해 환수하는 일은 지극히 어렵다. 나라별 금융시스템 차이를 악용해 자금을 쪼개고 옮기면 설령 범인을 잡아도 돈은 이미 증발해 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결국 자신 뿐이다. 평소에도 해외로 돈을 보내라는 요구나 국제전화로 걸려 오는 긴급한 부탁에는 무조건 한번 더 생각해야 한다.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 있는 사기범들은 인터넷 너머로 새로운 희생양을 물색하고 있다. 그 목표가 내가 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면 안된다.

/ '사기 프로파일링' 저자

5%대 발행어음의 ‘금리 착시’



김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연 5.7~8%. 키움증권과 하나증권이 발행어음 특판에 내건 금리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상품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금리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상품의 매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표시된 금리와 실제 투자자가 손에 쥐는 이자 사이에는 투자 한도와 만기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이 한글날을 기념해 선보인 발행어음 특판은 세전 연 5.8% 금리를 내세웠다. 다만 만기는 3개월이고 1인당 가입 한도는 100만원이다. 가입자가 한도를 모두 채우고 만기까지 보유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세전 약 1만4500원이다. 높은 금리를 내걸었지만 실제 혜택은 목적에 맞춰 제한적으로 설계된 셈이다. 이자소득세 15.4%를 단순 적용하면 세후 수령액은 약 1만2300원이다. 연 5.8%라는 숫자가 주는 인상과 실제로 얻는 수익 규모 사이에서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다.

물론 연 수익률로 금리를 표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아니다. 만기가 짧은 상품의 수익률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려면 연율 환산이 필요하다. 문제는 최고금리만으로 상품을 비교할 경우 투자자가 실제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해당 금리를 얼마나 오래 적용받을 수 있는지 상대적으로 가려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하나증권도 연 5.7% 금리를 적용하는 발행어음 특판을 선보였다. 만기는 1년이고 1인당 가입 한도는 500만원이다. 가입 대상에 제한이 있지만, 한도를 채워 만기까지 보유하면 세전 28만5000원, 세후 약 24만10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키움증권보다 금리

는 0.1%포인트 낮지만 가입 한도는 5배, 만기는 4배 길다. 이에 따라 만기까지 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의 절대 규모도 크게 달라진다. 두 상품의 가입 조건과 운용 기간이 다른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최고금리만으로는 실제 투자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금리 경쟁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투자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려는 경쟁은 선택지를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상품의 매력을 설명하는 가장 눈에 띄는 숫자가 연 수익률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투자 한도와 만기, 가입 자격에 따라 실제 수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발행어음의 경쟁력을 가르는 기준은 가장 높은 금리라는 숫자만이 아니라, 투자자가 그 금리로 얼마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있어야 한다.

/ godhe@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3일 (음 9월 1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이제 건강도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60년생 말을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72년생 자기의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84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49년생 앞에 너무나도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61년생 너무나 지쳐 있으니 조금 쉬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73년생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 85년생 귀하가 가던 방향을 고집해야 합니다.



50년생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62년생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집중하세요. 74년생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날입니다. 86년생 오늘 하루를 즐기세요.



51년생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사세요. 63년생 부와 명예가 귀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5년생 생활을 즐겨주세요. 87년생 오늘은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52년생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맑게 하세요. 64년생 현실적이면서 낭만적인 삶을 사세요. 76년생 지나치게 무게 잡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88년생 갑자기 새로운 모험심이 생깁니다.



53년생 마음이 흔들릴 일이 있습니다. 65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77년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세요. 89년생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54년생 쓸데없는 고민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66년생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78년생 아직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90년생 마음을 편히 가지고 여행을 다녀오세요.



55년생 행운이 따르는 즐거운 하루입니다. 67년생 일처리에 있어서 서두르지 마세요. 79년생 반가운 옛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91년생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나친 고집을 피우지 마세요.



56년생 새로운 일에 착수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68년생 운세가 좋지 않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80년생 참고 인내하면 노력의 결실이 있겠습니다. 92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57년생 단시일 내에 이루려는 꿈은 불길합니다. 69년생 노력하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81년생 만인이 공로를 치하하며 받게 됩니다. 93년생 사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58년생 집안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70년생 좀더 차성을 드림이 좋겠습니다. 82년생 하늘이 대복을 내려주시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94년생 오랜 끈기와 인내가 결실을 보게 됩니다.



59년생 건강은 건강할 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71년생 동쪽에서 귀한 손님이 옵니다. 83년생 기회란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95년생 호랑이가 날개를 달았으므로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김상희의 四季

심오야 둥근 달

추석은 지났지만, 요즘은 명절이 주는 의미가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는 것은 필자의 소회일까? 정겨운 초가집 지붕 위로 탐스럽게 떠 있는 심오야 둥근 달과 “낙낙한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즐겁고 여유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아니더라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심정이 그대로 전해져 온다. 필자의 어릴 적 명절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북적거렸고 흥겨웠었다. 식솔이 많은 잘 사는 집이나 형편이 어려운 집이나를 막론하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음식을 만들며 정겨움이 피어올랐다. 언제부터인가는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등장하더니 이제는 명절 연휴를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가는 집이 부지기수인 것 같다. 명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필자의 월광사에서서는 당연히 합동 추석과 구정 차례를 모신다. 사정상 차례를 지내기 힘든 여건의 신도들의 청에 부합도 하지마는 필자 역시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리며 차례를 모시는 것이다. 합동 차례에 동참하는데 어떤 해에는 신도분이 송편과 떡국 떡 공양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가까이 받아 올리기도 한다. 송편은 쌀가루를 뜨거운 물로 반죽해서 안에 는 팔이나 깨·콩·밤 같은 소를 넣어 반달 모양으로 만든다. 소나무 잎을 깔고 찌기 때문에 송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자연 그 자체를 담은 추석의 시그니처 음식이 바로 송편이요 떡국이다. 보름달 뜨지 않은 한가위를 상상할 수 없듯이 말이다. 사과와 배 등 과일 공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오래된 신도 한 분은 직접 집에서 부친 육전을 몇 년째 준비해 오기도 하고, 월광사에서 차릴 뿐이지 대부분의 차례상 음식은 따지고 보니 거의 신도분들이 준비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으로 차례를 지내고 나서 감사와 발원은 그 배가 된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19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2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한글형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결란스도쿠1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2	3	4	5	6	7	8	9
8	7	6	5	4	3	2	1	9
6	9	8	7	6	5	4	3	2
9	6	7	8	9	8	7	6	5
5	4	3	2	1	9	8	7	6
2	9	8	7	6	5	4	3	2
7	6	5	4	3	2	1	9	8
4	3	2	1	9	8	7	6	5
3	2	1	9	8	7	6	5	4